

[종합]

에베레스트 정상서 여수엑스포 유치 기원

광주 '희망 원정대' 엠블럼 깃발 휘날려

세계 최고봉 에베레스트(8,848m)와 제 4위 봉인 로체(8,516m) 정상에 2012 여수세계박람회 유치에 기원하는 깃발이 잇따라 날아갔다.

'희망을 위한 2007 한국도로공사 에베레스트-로체원정대'(대장 박상수·48·광주시산악연맹)는 11일 여수시청을 방문, 에베레스트와 로체에 올라 촬영한 등정 사진을 전달했다.

이 사진은 지난달 16일 에베레스트 정상에 오른 김홍빈(44·에코로보 홍보이사), 윤중현(39·자영업), 김미근(35·한국도로공사) 대원이 희박한 산소 때문에 한 시도 머물기 힘든 상황에서 여수박람회 엠블럼과 '2012 여수세계박람회 EXPO 2012 YEosu KOREA'라는 로고가 새겨진 깃발을 들고 번갈아 촬영한 것이다. 고층 출신의 열 손가락이 없는 장에 산악인으로 세 번째 도전 끝에 에베레스트 정상

에 오른 김씨는 "정상에서 태극기와 함께 여수세계박람회 깃발을 힘차게 펼쳐 오느 11월 여수가 2012년 세계박람회 유치가 성공할 수 있기를 기원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4일 로체에 이어 에베레스트까지 연속 등정, 양 봉우리 정상에서 여수박람회 깃발을 펼친 윤 대원과 김 대원은 "여수세계박람회는 국민 모두가 유치에 나서야 할 하늘이 준 기회"라고 입을 모았다.

오현섭 시장은 "극한의 사투 끝에 세계 최고봉에 올라 세계박람회 여수 유치를 기원해 준 대원들의 모습을 직접 보니 감동이 벅차 오른다"며 감사를 표했다.

대원들은 '공기업인 한국도로공사가 여수 세계박람회 유치를 국가적 프로젝트를 적극 홍보하자'는 데 뜻을 모아 여수시에 거리



지난달 16일 에베레스트 정상(8,848m)에서 2012 여수 세계박람회 유치에 기원하는 대원들. 왼쪽부터 윤중현, 김미근, 김홍빈씨. (희망을 위한 2007 한국도로공사 에베레스트-로체원정대 제공)

개양대에 내걸었던 깃발을 쟁겨 정상까지 들고 올라갔다. 박 대장은 "히말라야 정상에서 촬영한 사진들이 세계박람회 유치 홍보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며 정상 사진들을 여수시에 기증했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여수=박양규기자 ykpark@

여수·해남·무안 등 5개 시·군 하수도 연체 이자율 최대 77%

지방세 연체를 보다 높아

여수·해남·무안·완도·진도 등 전남도내 5개 시·군의 하수도 연체 이자율이 최대 77%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제정의실천연합은 지난 2월 전국 164개 지자체(시·군 단위)를 대상으로 행정정보공개 청구와 관련 조례 분석을 통해 상하수도·도시가스·전기 등 공공부문의 연체율에 대해 조사한 결과, 전남의 경우 여수 등 5개 시·군 하수도 연체 이자율이 지나치게 높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시·군의 경우 하수도 요금 연체시 최초 이자율이 5%였으며, 매달 1.2%씩 60개월까지 최고 77%의 연체 이자율을 적용하는 등 지방세 연체에 대한 증가산 방식보다 더 심한 연체 이자를 물리고 있었다. 이에 따

라 10만원의 하수도 요금을 연체한 뒤 이를 납부하지 않았다면 차츰 이자율이 높아져 60개월 후에는 납부해야 할 요금이 17만7천원까지 늘어나는 셈이다. 지방세법은 연체시 최초 연체이율 3% 적용 후 다음달부터 1.2%까지 가산하여 60개월까지 연체이율을 가산하고 있다.

이 같은 증가산 방식은 전국적으로 고양시와 오산시, 용인시 등 45개 지자체가 상수도 요금에, 여수·해남, 서 울시 등 19개 지자체가 하수도 요금에 각각 적용하고 있었다.

상하수도 요금이 각 지자체별로 부과·징수되는 까닭에 연체 이자율은 지역별로 천차만별로 달라서 가장 높은 곳과 가장 낮은 곳의 차이가 상수도는 최대 38배, 하수도는 최대 25배나 돼 지역간 불균형도 심했다. /김주정기자 jnews@kwangju.co.kr

韓총리, 세계박람회 현장점검 15일 여수 방문

한덕수 국무총리가 오는 15일 2012년 세계박람회 후보지인 여수를 방문한다. 한 총리는 이날 기획예산처 장관, 건설교통부 장관, 해양수산부 차관, 유치위원회 부위원장 등과 함께 박람회 개최 후보지인 여수 현지를 내려온다.

한 총리 일행은 이날 오후 박람회 준비상황 설명회에 참석한 뒤 이어

세계박람회 후보지인 여수시청 일대를 둘러보고 미평육교 등 SOC 현장을 시찰한다.

한 총리의 이번 여수방문은 오는 18일부터 이틀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제 141차 BIE총회에 앞서 개최 후보지인 여수를 둘러 여수시민들의 유치열기를 확인하고 현지 준비상황을 둘러보기 위한 것이다.

여수시는 이번 총리의 여수방문 기간동안 2012여수세계박람회 여수시 준비부 각 분과위원, 시민들의 대대적인 환영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여수시 관계자는 "최고위급 각료인 국무총리가 세계박람회 관련 중앙부처 주요 장관, 차관 등을 대동하고 BIE총회 직전 박람회 개최 후보지인 여수를 방문한 것은 대단히 의미 있는 일"이라면서 "2012여수세계박람회 개최에 대한 중앙정부의 관심과 의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라고 말했다. /여수=박양규기자 ykpark@

광주비엔날레 대대적 조직개편

사무총장직 폐지... 경영지원팀 등 신설

광주비엔날레 재단이 조직 경쟁력 강화를 위해 팀제를 도입하고 사무총장직을 폐지하는 등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단행한다. 또 그동안 비효율적으로 운영돼온 재단 운영의 합리화를 위해 경영지원팀과 장기사업 운영실도 신설된다.

(재)광주비엔날레는 경희대 문화예술경영연구소(소장 박신)로부터 이같은 내용의 '광주비엔날레 발전방안' 용역 결과를 납품받아 조직 개편 작업에 착수했다고 11일 밝혔다.

용역안에는 사무총장과 사무국장직을 폐지하고 사무총장 직을 폐지하는 대신 사무총장 직을 폐지하고 사무국장을 신설하는 등 조직 개편을 단행한다. 또 그동안 비효율적으로 운영돼온 재단 운영의 합리화를 위해 경영지원팀과 장기사업 운영실도 신설된다.

또 비엔날레의 장기적인 발전과 비전을 제시할 경영지원팀과 장기사업 운영실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

결과도 나왔다.

비엔날레 행사가 열릴 때마다 제기돼온 정체성과 차별화 전략을 위해서는 비엔날레 본 행사와 별도로 '영 비엔날레'를 신설하고, 아트페어를 개최하는 방안이 도출됐다.

'영 비엔날레'는 아시아권 신진작가 발굴, 아트페어 개최는 비엔날레를 개최함으로써 지역 미술 시장 활성화를 모색하기 위한 전략이다.

비엔날레는 이 같은 용역안에 따라 우선 사무총장직을 폐지하고 사무국장을 유지하기로 의견을 잡고 있다. 현 사무총장은 이날 말까지 업무를 맡게된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노동조합 역할

41점... '낙제점'

한국노총 만족도 조사

전투적, 정치적 노동운동 관행 등으로 인해 국내 노동조합이 시민들로부터 '41.4점'의 낙제점을 받았다.

11일 한국노총에 따르면 5월 11~16일 누리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성인 남녀 800명을 대상으로 사회약자 권익보호 기여 등 10개 항목을 유지키로 나눠 노동조합의 역할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노동조합의 역할에 대한 평균점수가 41.4점에 그쳤다.

항목별 점수를 보면 '사회약자 권익보호 기여'가 37.0점으로 가장 낮았고 ▲ 국민경제발전 39.5점 ▲ 노조 민주화 노력 40.9점 ▲ 노동자 삶의 질 노력 49.9점 ▲ 노동자 권익 증진 54.6점 등이다. 응답자들의 70% 이상은 불법사위(76.1%), 노조의 잦은 파업(75.4%), 노조 집단이기주의(71.8%) 등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연합뉴스

빛의만평

- 김중두



형님 생각해서 말 아길 사람까지..

전남도청 전직원 멘토로 나선다

《Mentor: 후견인》

"도민들의 든든한 후견인이 되겠습니다."

전남도청 및 산하 전직원 3천600여명이 다양한 분야에서 도민들에게 도움을 주는 '멘토'(Mentor: 조인자, 후견인)로 나선다. 전남도 전 공무원은 도민과 일대일 '멘토링(Mentoring)'을 통해 도움을 주는 "3천600 여명 시포터스 사업"에 참여한다.

이에 따라 도청 전 공무원은 6월 말까지 도민 가운데 후견 대상자를 직접 선택, 매월 전화 및 방문상담을 통해 애로·고충을 듣고 도움을 주게 된다. /박지영기자 unipark@

전남·북, 경남·북 등 10개 시·도 '연안권발전 특별법' 제정 촉구

부산·인천·울산시와 경기, 강원, 충청, 전남·북, 경남·북 등 연안을 끼고 있는 10개 시·도가 해양 경제추진 개발을 위한 '연안권발전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11일 경남도에 따르면 남·동·서해안을 아우르는 이들 시·도지사·부지사들과 해당 지역 국회의원 등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의 한 음식점에서 만나 국회에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연안권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할 것과 정부도 이에 협조할 것을 촉구했다. 참석자들은 10명의 시·도지사와

해당 지역 국회의원들 명의로 공동 성명서를 발표하고 "연안의 효율적인 이용과 동시에 체계적인 보전을 지향하면서 연안의 잠재력을 활용한 해양경제추진을 구축,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특별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통해 국가 및 지역발전을 도모해야하는데 일부 중앙부처의 이견으로 인해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에 계류중"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광고접수안내

광주일보 안내광고 원고는 FAX로 접수하고 광고료는 우측 은행계좌에 입금해주시면 신속히 게재해 드립니다.

☎(062)220-0524 • 직통: (062)227-9600 • FAX: 227-9500

◆광주은행: 001-107-228160 ◆동 협: 617-01-108334

*예금주: (주)광주일보사

신행안내

6월 13일(수)

▲전남신학회 원도 행사도 대방산 6월17일(일) 07시30분-3630, 011-642-3197

▲청북신학회 전북 관주군 운의산 6월13일(수) 08시 09분-3630, 011-616-5917

▲대리신학회 지리산(전남) 6월13일(수) 06시30분-3630, 011-649-4576

6월 14일(목)

▲광주신학회 서울 관악사 삼성산(북경발원전) 6월14일(목) 07시 대인광장(신형관) 관망: 011-602-6278

▲나사시모신학회 관남정맥(원지재) 6월17일(일) 07시 06분-3034

▲무등신학회 표암산 관주군 6월17일(일) 07시 06분-3034

▲광주신학회 서울 관악사 삼성산(북경발원전) 6월14일(목) 07시 대인광장(신형관) 관망: 011-602-6278

▲나사시모신학회 관남정맥(원지재) 6월17일(일) 07시 06분-3034

▲무등신학회 표암산 관주군 6월17일(일) 07시 06분-3034

▲광주신학회 서울 관악사 삼성산(북경발원전) 6월14일(목) 07시 대인광장(신형관) 관망: 011-602-6278

▲나사시모신학회 관남정맥(원지재) 6월17일(일) 07시 06분-3034

▲무등신학회 표암산 관주군 6월17일(일) 07시 06분-3034

카드결제대납

★잔여 한도 대출

★카드 연체 대납

☎228-3688

세계 심부름

★가정·애견·여행·시범

24시간 상담

☎228-0459

크로바공인중개사

☎432-4560/018-690-3110

(금호동 CBS빌딩 11층)

◆토지 매도

◆금호동 CBS 방송국 옆 200평 1층주거지 대면 인 근/평당300만원

◆금호동 CBS 방송국 부근 1층주거지 100평/평당 200만원(일몰부지)

◆정성동 황현면 전적 관리지역 전 200평 상무대서 조성된 방화차로 전 (대안주주소물류창고)

◆해운동 도곡면 청안리 오천지구 내 모텔부지 633평 / 매926천500만원(무인특별)

◆상가 건물 매도

◆금호동 CBS빌딩 옆 아파트상가 2층 30평 / 매8,500만원(광고효과)

◆금호동 2차주 대면 아파트상가 1층10평 / 매926천500만원(보통)

◆금호동 부영아파트 부근 4기리코너 대지885평(평당150평) 3층건물 보충금8,000만원 월20만원/매 4억3천만원(용1억5천만원)

◆성동동 치평동 부근 버스노선 4차로점 대지64평 건평 97평 보충금9,800만원 월20만/매298천만원

◆유동동 아파트 3천세대 밀집지역 상권주요 준 주거지 대지150평 건평490평/매18억4천3,000만원/760만, 용1억5천만원

◆동원동 주공 2.4천평 아파트밀집지역 위트부근 대지700평 건평124평 매1억9500만

(보2억2천500만원/700만원)

◆팔곡동 소방서 뒤 2차로 점 1층 상가주거 대지62평 건평36평 보충금2,500만원 월16만원 매1억4천만원

◆광주호 인근 상업용 식당 매도

◆당양동 남면 광주부근 일주도로점 대560평(일부부지) 60평 보충금5,000만원

◆광주호 인근 아파트및분양권 접수환경

◆광주호 인근 인근도지 건물 접수환경

◆부동산 매도·매수 수시 상담환경

공시 최고

사 건 2007카공34

신청인 박연옥

전남 해남군 북일면 신월리 422

애매 기재 증서의 소지인은 공시회고결정인 2007. 9. 17. 15:00까지 이 법원에 권리 또는 청구의 신고를 하고 그 증서를 제출하기 바랍니다. 민원 이를 제출하면 권리 상실하여 증서의 무효가 선포될 수 있습니다.

·종 류: 자기앞수표

·번 호: 49585950-51

·금 액: 각금1,000,000원(2매)

·발 행 일: 2007년 5월 30일

·발 행 인: 김은기

2007년 6월 12일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판사 김윤정

공시 최고

사 건 2007카공35

신청인 이준석

전남 완도군 소안면 맹선리 168-1

애매 기재 증서의 소지인은 공시회고결정인 2007. 9. 17. 15:00까지 이 법원에 권리 또는 청구의 신고를 하고 그 증서를 제출하기 바랍니다. 민원 이를 제출하면 권리 상실하여 증서의 무효가 선포될 수 있습니다.

·종 류: 자기앞수표

·번 호: 라미22946331

·금 액: 금1,000,000원

·발 행 일: 2006년 4월 26일

·발 행 인: 농협중앙회(소안농협동조합)

2007년 6월 12일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판사 김윤정

공시 최고

사 건 2007카공36

신청인 박종근

광주 북구 중흥2동 모이타운 106-1105호

애매 기재 증서의 소지인은 공시회고결정인 2007. 9. 17. 15:00까지 이 법원에 권리 또는 청구의 신고를 하고 그 증서를 제출하기 바랍니다. 민원 이를 제출하면 권리 상실하여 증서의 무효가 선포될 수 있습니다.

·종 류: 자기앞수표

·번 호: 02113595

·금 액: 금1,000,000원

·발 행 일: 2007년 6월 1일

·발 행 인: 정재근

2007년 6월 12일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판사 김윤정

합병 공고

주식회사 금중기업(주)과 유한회사 대성엔지니어링(유)은 2007년 6월 11일 같은 날 주주총회 및 사원총회 결의(주)는 (유)를 합병하여 그 권리와 의무 일체를 승계하고, (유)는 해산하기로 결의하였으며, 이 합병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 공고일 익일부터 1개월 이내에 이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 6월 12일

(주) 주식회사 금중기업

대표이사 김중석

(유) 유한회사 대성엔지니어링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1가 356-1

대표이사 김한성

제권판결

사 건 2007카공309

신청인 최윤주

광주 북구 중흥동 331-78

승달장소: 광주 북구 중흥동 279-61

애매 기재 증서에 대하여 2007. 2. 1. 공시회고결정을 하였으나, 그 공시회고에서 정한 2007. 5. 16. 15:00까지 권리의 신고나 청구 및 증서를 제출한 자가 없으므로, 신청인의 신청에 의하여 무효가 선포된 것으로 결정한다.

·종 류: 가계수표

·번 호: 마7101038196

·금 액: 금2,600,000원

·발 행 일: 2006년 8월 8일

·발 행 인: 마7101038197

·금 액: 금2,600,000원

·발 행 일: 2006년 9월 12일

·발행인 및 지급인: 김중기

·지급장소: 광주은행 여수지점

2007년 6월 12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사 정수경

제권판결

사 건 2007카공21

신청인 손영모

전남 보성군 벌교읍 장암리 782

애매 기재 증서에 대하여 2007. 2. 1. 공시회고결정을 하였으나, 그 공시회고에서 정한 2007. 5. 16. 15:00까지 권리의 신고나 청구 및 증서를 제출한 자가 없으므로, 신청인의 신청에 의하여 무효가 선포된 것으로 결정한다.

·종 류: 자기앞수표

·번 호: 88472074-2100

·금 액: 각금500,000원(27매)

·발 행 인: 벌교농협동조합 조정지점

·지급장소: 벌교농협동조합 조정지점

·최후소지인: 손영모

2007년 6월 12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사 정수경

분할합병공고

2007년 6월 11일 주식회사 금중기업(주)과 유한회사 대성엔지니어링(유)은 각 임시주주총회 결의로 상호 50%의 2 이상에서 규정하는 분할합병에 따라 (주)의 장기투자자에게 권리와 의무 일체를 분할하여 그 분할된 부분을 (유)에 합병하고 (주)는 존속하기로 결의하였으며, 이 분할합병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 공고일 익일부터 1개월 이내에 관계회사에 이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 6월 12일

1.분할대상기업(주)명: 금중기업(주) 2.분할대상기업(유)명: 대성엔지니어링(유)

(주) 주식회사 금중기업

주소: 광주 북구 중흥동 279-61

대표이사 김중석

(유) 유한회사 대성엔지니어링

주소: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1가 356-1

대표이사 김한성

합병 공고

주식회사 금중기업(주)과 유한회사 대성엔지니어링(유)은 2007년 6월 11일 같은 날 주주총회 및 사원총회 결의(주)는 (유)를 합병하여 그 권리와 의무 일체를 승계하고, (유)는 해산하기로 결의하였으며, 이 합병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 공고일 익일부터 1개월 이내에 이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 6월 12일

(주) 주식회사 금중기업

대표이사 김중석

(유) 유한회사 대성엔지니어링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1가 356-1

대표이사 김한성